

한경 BUSINESS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장 인터뷰
“사회 갈등 해소하는 큰 정치 필요”

상반기 빅히트 아이디어 상품 10선
주식시장서 건설주가 주목받는 이유
‘관심 집중’ 대전 지역 원룸 투자 가이드

하반기 태풍의 눈

10대 경제 키워드

‘세계 최고 싱크탱크’ 브루킹스를 가다

폭발적 인기 끄는 ‘혁신학교’ 밀착 리포트
베일에 가려진 ‘배당 부자들’의 대박 스토리
새로 밝혀진 힐라의 타이들리스트 인수 막전막후



값 3,500원



한국경제신문



새로이 각광받는 규슈(九州)

한중 투자 잇따라... 日 공장도 속속 건립

김홍영 법무법인 지평지성 일본담당 전문위원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규슈 지역에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 사진은 3월 12일 개통된 규슈 신칸센.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혼슈(本州)·시코쿠(四國)·규슈(九州) 등 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규슈는 한반도에서 제일 가깝고 동북아시아라는 큰 잠재 시장에 인접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와의 지리적 거리, 낮은 경제 기여도 등 때문에 각광받지 못했다. 이런 규슈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규슈의 인구는 약 1320만 명이고 면적은 남한의 42%(4만2000km²), 일본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생산 비중은 8.7% 정도다. 규슈는 메이지 유신 때까지 아시아와 유럽에서 전래된 문물을 일본 본토로 전파시켜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창구 역할을 맡았다. 그 후 석탄과 철광 산업이 발전해 일본 경제 성장기에 큰 기여를 했지만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쿄와 오사카가 있는 혼슈를 중심으로 일본 전체가 재편되면서 과거의 영광만이 존재하는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요즘 규슈는 지리적 이점과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자연재해로부터 생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규슈의 중심 도시인 후쿠오카(福岡)에서 도쿄까지는 880km, 서울까지는 540km, 상하이까지는 900km로, 규슈는 거대한 시장인 동북아시아의 주요 지역과 아

주 가깝다. 또 최근 규슈 신칸센이 개통돼 규슈 전역의 물적·인적자원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후쿠오카시는 지방정부·학계·산업계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쿄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아시아로 열린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산업·문화·학술 등 다방면의 교류에 힘을 쏟아 왔다.

동북아 국가와 가까운 이점 심분 활용

규슈가 동북아와 가깝다는 점이 외국계, 특히 한국 기업의 규슈 지역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은 규슈 지역에서 골프장 22곳과 호텔 9곳을 매입하는 등 규슈 지역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또 내수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 규슈는 일본의 새로운 생산 기지가 되고 있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일본 내 우수 기업들은 해외시장, 특히 한국과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규슈 중심의 생산 시설 재편으로 이어졌다. 닛산자동차는 일본 국내 자동차 총생산량 135만 대 가운데 55만 대를 규슈의 2개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에 맞춰 규슈 지역의 생산 기지를 재편했다.

또 동일본 대지진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규슈에 제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쇼와 쉘 석유는 정유 업체로는 드물게 약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규슈 지역에 태양광 전지 회사의 새로운 공장을 설립했다. 최근에는 도요타나 혼다처럼 부품 조달을 한국이나 중국으로 다각화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비교적 주변부에 머물렀던 규슈가 지리적 이점으로 최근의 일본 경기 침체를 타개할 활력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규슈가 앞으로 일본이 경제 불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